



올해 벤처투자 성장성과 수익능력에 초점

글 _ 양정규(한국기술투자 대표)

○ 한국산업의 신성장 동력은 벤처산업이다. 올해도 전후방 산업의 연계효과와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벤처투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벤처투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정보통신분야는 미래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수익이 기대되는 분야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홍채인식'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 올해부터 발효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생체정보 권고안과 미국의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 개혁법'을 배경으로 IT기술이 접목된 생체인식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약진으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확보가 산업 및 경제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메모리칩 생산국을 유지하고 있다. 차세대 메모리, MPEG 등은 경쟁 우위에 있고 시장성도 높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선진적 기술수준과 결합되는 제품 아이디어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 바이오분야의 투자에 부정적인 반응도 많은 반면 최근 세계적으로는 미 광우병과 중 사스가 국내에서는 조류독감, 전립선암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분야는 무한한 사업기회가 장점인 동시에 치열한 경쟁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인터넷 분야는 시장지배력과 수익모델 검증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근 투자 매력도가 급격히 상승되고 있는 분야는 영화, 교육 등의 콘텐츠분야이다. 콘텐츠분야는 유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기간내 투자회수가 가능한 매력적인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벤처투자는 실질적인 기업 성장성과 잠재적 수익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특히 투자 심사의 기준으로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확대와 강화된 코스닥 등록요건 등이 감안될 것이다. 또 지난해 M&A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양한 M&A펀드가 조성될 듯하다.

벤처투자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회수 이외에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기법이 주요 투자기법으로 자리잡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벤처인들이 다시 한 번 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